

## 2011 수시인문

죽음이란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는 필연적인 현상이지만 세 제시문에서 인간과 동물 모두 죽음을 비일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사유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가)와 (다)의 인간은 죽음의 인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생각하기까지 나아가면 (나)의 고릴라들은 오로지 인식에 그친다. 암컷 고릴라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나, 낯선 현상임을 깨닫고 반응을 유도해 내려는 하는 것이다. 고릴라들은 친족관계 여부나 경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인식 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아들과 손녀인 이카루스, 무라하는 사체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 털 고르기의 행위를 통해 애착을 드러낸다. 우두머리 벤토벤은 이카루스의 폭행을 저지하는데 이는 죽음에 대한 경험을 통해 명확하게 인식한다. 반대로 어린 고릴라들은 반응만 살피고 확인할 뿐 인식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와 (다)의 인간은 특수성을 들어 죽음에 대해 사유하는 능력을 인정하지만 죽음에 대한 상이한 태도를 가진다. 이런 각 태도는 사후관 및 매장풍습의 특징에서까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가)에서 인간은 죽음을 삶의 연속선상에 두며 영속화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사후 세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결과 매장풍습은 풍요롭고 화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매장풍습에 대한 긍정적 해석은 자연 질서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반면 (다)에서의 인간은 죽음을 삶의 끝이라 본다. 여기서 기인한 두려움으로 죽음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악취와 추악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시체가 단적인 예가 된다. 따라서 매장은 사체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발달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묘지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다.

세 제시문을 통해 죽음에 대한 태도가 인간과 동물의 죽음에 대한 차이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에서도 주장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의 새와 (나)의 고릴라는 같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유인원인 고릴라는 관심을 갖는 등 한층 더 깊은 죽음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진화정도에 따라라도 반응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2.제시문 (라)에서 두 실험은 배설물, 화장실, 등 부패와 관련된 단어 및 환경이 죽음에 대한 연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실험1에서는 배설물과 관련된 단어를 접한 '갑'집단이 약 10%의 단어를 완성하였으며 친구와 연관된 단어를 접한 '을'보다 약 30%에 해당하는 단어를 완성시켰다. 실험2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드러낸다. 화장실 근처에 위치한 학생들은 약 10%를 완성하였고 화장실에서 떨어진 장소에 위치한 학생들은 35%정도의 단어를 완성했다. 다만 실험1의 갑은 0.64개 실험2의 을은 0.21개로 절대적인 수치의 차이를 보인 것은 단어를 통한 직접적 연상과 상황을 통한 간접적 연상이냐의 차이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라)의 실험결과는 (다)를 통한 해석이 가능하다. (다)에서는 악취와 추악한 것을 기피하여 부패하는 죽음 또한 싫어하는 인간의 본능을 말한다. 실험1에서 죽음이라는 직접적 언어가 기피 현상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배설물도 더러운 것으로 죽음을 회피하게 만든다.

(라)의 실험은 (가)를 통해 또한 해석할 수 있다. 실험1에서 친구라는 단어를 연상시키고 실험2에서는 같은 기숙사생 50명을 실험대상으로 한 것이 죽음을 더 연상시킨 것이다. (가)에서는 죽음은 함께 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낸다고 말하는데 친구나 같은 기숙사 동기는 동질감을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죽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연상정도가 큰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서 기피하기보다는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사실 이 실험은 실험설계에서 잘못됐다고 할 수 있다. 배설물이라는 단어 자체로 죽음을 연상시키는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또한 표본이 50명으로 너무 적으며 성별, 학년이 동일한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그 결과값이 한 집단만을 대변할 수 있다.